

# 한림항 어선화재로 2명 실종·3명 중상

## 한라산·계곡 등 훼손 전수조사한다 도사치경찰단, 7~9월 보전지역 일대 특별수사

어제 오전 출항 준비하던 29t 어선 폭발하며 화재  
바로 옆 정박했던 어선 2척도 불 옮겨붙으며 피해  
소방·해경 실종자 수색... 도 “재발 방지대책 마련”

크에서 발화가 시작돼 진화에 어려  
움을 겪었다. 결국 이날 오후 3시25  
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, 약 2시간  
뒤인 오후 5시14분쯤 불길이 완전  
히 잡혔다.

3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실종 상  
태인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가 8시  
간 57분 만에 진압됐다. 성산항에  
이어 이번 화재도 ‘밀집 정박’으로  
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.

파악됐다.  
해경과 소방은 육상 장비는 물론  
소방헬기 한라매까지 동원해 진압  
에 나섰다. 이날 오후 1시쯤 불길이  
잦아드는 듯 했지만, 상대적으로  
화재 피해가 덜했던 B호의 연료탱

제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“완진  
이 되면서 불에 탄 어선 내부에서  
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다. 그러나  
불이 시작된 A호의 경우는 침몰돼  
향후 인양작업이 필요하다”고 말  
했다.

산항 선박과 마찬가지로 ‘밀집 정  
박’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  
오고 있다. 여러 척이 다닥다닥 불  
어 정박하다보니 불이 나면 피해가  
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
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“오  
영훈 지사가 도내 전 선박에 대한  
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항·포구 일  
제조사를 골자로 하는 특별요청사  
항 1호를 7일 발령했다”며 “이번  
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
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송은범기자

“관광객 유치위해 편의시설  
건축·불법형질변경 등 증가”

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  
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 
계곡, 해안가 등 절대·상대보전지  
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 
두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  
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.

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은  
한라산·계곡·해안 등 자연경관이  
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 
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 
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’(이하 제  
주특별법)에 근거해 각종 개발행위  
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역이다.  
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

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 
불법 형질변경, 주차장 및 경사로  
조성,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 
일대 훼손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다.

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 
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 
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,  
사이버수사 전담 파트를반의 공간  
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  
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 
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는  
계획이다.

그 외 지하수자원과 생태계, 경관  
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 
내에서의 위반행위, 하천법·물환경  
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 
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.  
강다혜기자 dhkang@ihalla.com



7일 오전 10시17분쯤 제주 한림항 내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(29t)에서 화재가 발생했다. 이 화재로 선원 2명이 실종되고 3명  
은 중상을 입었다. A호 옆에 정박중이던 다른 어선 2척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 피해를 입었다. 이상국기자

7일 오전 10시17분쯤 제주도 한  
림항 내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  
채낚기어선 A호(29t)에서 ‘핑’하  
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.  
당시 A호에는 출항을 준비하던 선  
원 5명(한국인 3명·인도네시아인 2  
명)이 있었는데, 바다로 뛰어든 3  
명(한국인 2명·인도네시아인 1명)  
이 해경에 구조됐지만, 중상을 입  
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 나  
머지 인도네시아 선원 1명과 A호  
의 한국인 기관사 1명은 현재 실종  
상태다.

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들  
과 지인이 방문해 받을 동동구르는  
안타까운 모습이 목격됐다.

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 옆에  
세워진 같은 한림 선적 근해채낚어  
선 B호(49t·항구에서 첫 번째 정  
박)와 C호(39t·항구에서 세 번째  
정박)에 옮겨 붙었지만, 다행히 이  
들 어선에는 승선원이 없는 것으로

## 100억원대 ‘BTS 화보’ 사기단 실형

전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‘방탄  
소년단(BTS)’ 화보를 미끼로 100  
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  
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

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(재판장  
진재경 부장판사)는 7일 유사수신  
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
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(60)씨  
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. 이  
어 공범 3명 중 한명인 김모(51)씨  
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됐  
으며, 나머지 이모(60)씨와 조모  
(43)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  
행유예 3년,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
3년을 선고했다.

공소사실에 따르면 투자업체 대  
표인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 
2020년 1월까지 “BTS 화보를 제작  
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. 투자를  
하면 원금은 물론 30%의 수익도 보  
장하겠다”고 속여 투자자 72명으로  
부터 약 109억을 송금 받은 혐의로  
구속 기소됐다. 공범인 이씨는 해  
당 투자업체 고문, 조씨는 팀장, 김  
씨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씨의 범  
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.

검찰은 고씨가 BTS 관련 화보를  
제작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었으면  
서도 투자자를 모집했고, 투자금  
역시 직원 월급 혹은 위험 부담이  
큰 주식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고  
있다. 송은범기자 seb119@ihalla.com

##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400명대로 급증

지난 6일 413명 감염... 여름 휴가철 앞뒤 증가세 확인

격리중인 환자도 1742명

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  
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  
고 있다.

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 
난 6일 하루 동안 413명이 확진 판  
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 
까지 3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  
으로 나타났다.

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 
24만9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.

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 
사이에만 1860명이 확진 판정을 받  
았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 
266명을 나타내고 있다. 이는 전주  
대비 1017명이 증가한 수치다.

연령 별로는 0~9세(16.2%), 10~  
19세(18.3%), 20~29세(13.8%), 30~  
39세(15.6%), 40~49세(14.0%), 50~

59세(11.1%), 60~69세(5.8%), 70~  
79세(2.7%), 80세 이상(2.5%) 등의  
분포를 보이고 있다.

격리 중인 확진자 수도 1742명으  
로 크게 늘었다. 이중 1728명이 재  
택치료를 받고 있다.

신규 사망자는 없지만 위중증 환  
자 수도 4명으로 늘었다. 치명률은  
0.08%를 나타내고 있다.

강다혜기자 dhkang@ihalla.com

해수욕장 치안 유지위해  
국가-자치경찰, 합동순찰

제주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자치  
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요 해수욕장  
일대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 
있다고 7일 밝혔다.

제주경찰청은 함덕·이호·협재 해  
수욕장에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 
2인 1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
사이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순찰을  
실시하고 있다. 제주자치경찰단은  
공항만과 주요 관광지 및 제주도 6  
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  
활동을 하고 있다. 김도영기자

“무상급식비 추경증액 환영”

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주  
연대(이하 학교급식 제주연대)는 7  
일 성명을 발표하고 “지난 6일 오  
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제  
주 친환경·무상급식비 추경예산 증  
액 편성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  
다”고 밝혔다.

학교급식 제주연대는 성명서를  
통해 “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

리 농산물·무상급식을 통해 ‘희망  
의 밥, 평등의 밥’을 제공함은 사회  
구성원 모두의 책무이며 보편적 복  
지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 
됐다”며 “향후 학교급식 제주연대  
는 제주지역 친환경경·먹거리·식  
생활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하  
고 전격적 연대를 통해 ‘학교급식  
비’ 개정을 통한 ‘친환경·무상급식  
비 국가재정 50% 부담’을 위해 더  
욱 노력하겠다”고 했다. 김도영기자

###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

#### 국내육성

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.

####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

- 원터프린스** 차별화된 맛과 향,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.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!
- 탐나는봉**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. 기존 한라봉(부지화)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.
- 사라향**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,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.
- 하례조생**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.
- 제라온**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(상대적으로 강한 견로) 평가되는 품종.
- 미니향** 소과형(30g내외)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,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.

**과수농가 보급품종(1.3년생)** 레드향, 한라봉, 천혜향, 황금향, 유라조생, 공천, 흥진, 카라향, 신화홍(붉은색 감귤)

**가정원예(조경수)(2~7년생)** 하귤, 팔삭, 세이빙, 금귤, 당유자, 아미나스, 미니로,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(문의: 010-736-2479)

❖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! ❖ 1년생 규격묘, 2~5년생 일반묘, 포트묘, 화분묘 분양

사전에약 주문생산 탕빛1호, 선경, 주문생산 설봉미, 미니로, 무봉

제주한라농원은 (사)한국과수농협회 우수업체이며,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(통상실시권)계약자로 생산,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.

**제주한라농원** | 010-4736-2479 / 010-6500-2329  
 종자업등록번호 제18-2017-20-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(수산리735)

###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[신품종] 감귤 포트묘목 분양

[경쟁력 있는 우량품종,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]

**포트묘목?** ▶ 전부터 화상과 뿌리손상 방지 ▶ 미수익기간 단축 ▶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

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.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화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
**과수우량품종** [1~3년생] 한라봉 / 천혜향 / 레드향 / 황금향 / 카라향 / 공천 유라조생 / 흥진 / 하귤 / 금귤 / 레몬 다수 품종보유

**국내육성 신품종**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/ 탐나는봉 / 하례조생 사라향 / 제라온 / 미니향

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,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. 푸른지게농업회사법인(주) 장원농장

제1육묘장 -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/ 제2육묘장 -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 
 종자업등록번호 제18-2013-20-01호

**010-4450-4316 / 010-6550-4316**

### 모든품종 감귤(묘) 분양

종자업등록번호 제18-2002-20-07호

#### 황금향 4~5년생

- 원터프린스
- 황금향 • 레드향
- 천혜향 • 하례조생
- 미니향 • 레몬
- 탐라향 5년생 (화분)
- 공천 • 일남일호
- 유라(1~5년생)
- 천전(가와대) 조생

※ 신품종 다수보유

### 서귀종묘

064-733-7005, 010-6677-5753